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하절기) 꿈터 채플(동절기)
	2부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3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30	5층 세미나실

예배 안내

새싹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1층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1·2부 (초 1~3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지하
소년1·2부 (초 4~6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GOCHEOK PRESBYTERIAN CHURCH

예수동행 말씀동행 | 누가복음24:32

Vol.242

우물가

2025 / Winter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 제43권 제1호 통권 242호 | 2025년 12월 20일 발행 |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예수동행 말씀동행 누가복음 24:32





우물가

2025 Winter Vol.242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42호
2025년 12월 20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 행 인 | 차동혁 **지 도** | 김재광 **부 장** | 나원용 **팀 장** | 이재만
편집위원 | 이철현·이미선·김숙희·이은경·김영남·변숙영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마음을 전하세요!!

고척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From.

CONTENTS

2025 Winter

고척교회보 우물가 Vol 242

우물가

002 **당임목사 칼럼** 2026년, “오직 성경, 말씀이 답이다!”

004 **기획특집 1** **시니어 성도의 신앙고백**
“지난날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

010 **우물가 twitter** **일상과 삶의 이야기**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그 자리로
‘26년 새해에도, 친정에 온 것같은 편안함으로

016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전하는 이야기1**
깊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선교사가 전하는 이야기2
예배 처소가 없어 광야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가 전하는 이야기3
일본 영혼들 속에 자리 잡아

024 **특별기고** **다문화선교팀 이야기**
복음은 언어보다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

026 **부서탐방** **새가족부 정착팀**
새가족분들을 존귀하게 사랑으로

028 **임직자 간증** **장로임직**
하나님의 큰 계획안에 인도되어
권사임직
그럼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수집사임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

038 **군선교 소식** **최전방 군종참모의 군선교이야기**
청년선교의 전초기지인 군인교회에서

040 **우리 교회는?** 각 부서 이야기

058 **전시회** 작가 : 오지은, 작가 : 최미정, 작가 : 설금화

2026년,
“오직 성경, 말씀이 답이다!”



차동혁 위임목사

화려함은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합니다. 반면, 소박함은 사람들의 영혼을 놀라게 합니다. 다윗의 소박함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다윗의 짧은 시편인 131편이 그렇습니다.

>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할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가요? 젖 뗀 아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엄마 젖에 붙어살던 아기에게 어느 날 젖 떼는 날이 옵니다. 어떤가요? 난리 납니다. 세상을 다 빼앗긴 것처럼 울고불고 떼씁니다. 젖을 떼니 울고불고 떼씁니다. 저의 어머니는 빨간 약을 바르시고는, “약 발랐다” 하시며 젖을 떼셨다고 합니다. 제가 온종일 얼마나 울고불고 떼썼는지, 어머니가 저의 떼쓰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두기까지 했어요.

젖을 떼기까지는 또 먹을까 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주지 못해요. 그러다 젖을 떼고 나면 안아주지요. 그때 아이가 누리는 평안은 다 빼앗긴 세상을 도로 찾는 기쁨일 겁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부쩍 커서 엄마 품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 엄마 품을 꿈꾸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하고 놀라운 꿈들을 꾸지요.

그런데 다윗은 엄마 품 같은 꿈, 소박하지만 세상을 다 가져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꿈꿉니다. 소박하지만 영혼을 놀라게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의 핵심은 3절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바란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소박하게 말씀동행한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출근하고, 그 한 구절을 삼시세끼 먹듯이 하루 세 번만이라도 떠올려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박하지만 영혼이 놀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역사를 소박한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분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는 예수동행, 말씀동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동행의 길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있지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소소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많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소소한 일상의 기적도,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 2026년에는 말씀동행을 더 구체화하는 꿈을 꿉니다. 표어는 “오직 성경, 말씀이 답이다!”입니다. 화려한 꿈은 아닙니다. 소박하게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꿈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첫 번째 외침인 오직 성경을 외치며, 말씀에서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 원하는 꿈입니다. 소박하지만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세상보다 값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우려 합니다. 단계별 제자양육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1단계 제자양육에서는,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미 믿음이 확고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2단계 제자양육에서는, 고척의 모든 성도가 괄목할만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과 영성, 교리와 교회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3단계 제자양육에서는, 교회의 제반 사역을 위한 심화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적이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모든 항존직과 제직들이 필수로 듣게 될 과정입니다. 시작 첫해인 내년 2026년에는 1단계 제자양육을 중심으로 시무장로님들부터 교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제자양육을 충실히 수행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환란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사단 마귀와 그 어떤 이단 사이비가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는 말씀의 용사, 곧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고척의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양육 받아 성장하되, 젖만 먹는 아기에서 젖 뗀 아이, 딱딱한 말씀을 먹는 아이로 성장하고, 젖 뗀 아이가 말씀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서 삶의 정답을 얻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 우리는 벌써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고 싶지만 무슨 일이든 나설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고 싶은 과도한 열정마저도 다스려야 할 때지만 우리가 가슴속 깊이 지켜온 신앙과 말씀의 지혜는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보다는 글로 드러내어 세상에 둘도 없는 신앙고백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고척교회보 “우물가” 편집팀이 전국 교회중에서 최초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눌려왔을지도 모를 죄의 굴레를 벗어나 지금까지도 교회에 다니시는 아름다운 은빛 시니어 성도님들의 신앙을 짧게 되돌아보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이어가면서 문집으로 출간하고 육신의 힘이 다하는 날에는 시니어 성도님들이 내놓은 신앙의 글을 교회가 꼭 기념하고 펼칠 것입니다. 올해는 그 첫 회로 시니어 교인을 임의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인터뷰 질문

1.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2. 믿게된 과정
3. 삶의 변화
4. 고백 : 예수님은 어떤분이신가요?
5. 생각나는 것 중 가장 즐거웠던 교회생활은?

♣ 오경주 은퇴안수집사(1952년생 / 은혜 20목장)

1. 예수님을 만나기전 믿음이 없었으나 교회에 참석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이 너무 좋아 믿게 되었습니다.
2. 이웃에 살고계신 고척교회 장로님의 권유로 먼저 교회에 나갔고 후에 저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주말이면 세상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나 변회된 교회 생활로 인해 찬양하며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길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4. 우리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분!
5. 상례팀으로 봉사하며 갑자기 돌아가신 분 장례에 운구위원으로 참여하여 유가족들의 감사와 상례팀 사역에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황분임 명예권사(1954년생 / 화평28)



1. 평강하지 못했고 죽음만 생각하면 불안하였습니다.
2. 2004년 광명시에서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도 안되고 병환이 10년 만에 재발 되었습니다. 환란을 겪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이후 개봉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3.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4.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5. 처음엔 직장관계로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 입어 병원도 안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일도 감당하며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즐겁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나기태 은퇴안수집사(1949년생 / 섬김32목장)



1. 예수님을 만나기전 방황하던 생활을 하였습니다
2.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때마다 그 속에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4. 죄인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가져다주신 분입니다.
5. 매주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 이환영 은퇴안수집사(1948년생 / 소망34목장)



1. 항상 부족했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2. 조부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입니다.
3. 조용하게 기도하는 생각(삶)속에 많은 일상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4.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존귀하신 믿음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금의 고백으로 살고 싶습니다.
5. 교우분들이 속해 있는 사역팀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담소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참 즐겁고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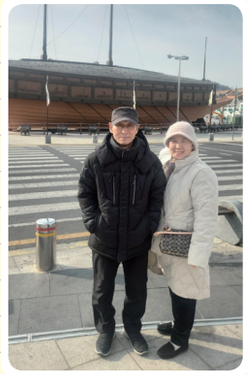
♣ 김석호 은퇴안수집사(1956년생 / 사랑01목장)



1.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작은 파도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2. 어여쁘고 착한 아내의 권유로 믿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 예수님을 믿고나니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고 일상이 이전과 다르게 따뜻해졌습니다.
4. 예수님은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차가운 마음 녹이고 따뜻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5.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찬양했던 시간들과 찬양대로 예배를 드리고 순간순간마다 조용히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사역팀에서 봉사와 나눔의 기쁨이 넘쳐났던 순간들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 이병욱 은퇴안수집사(1948년생 / 은혜07목장)

1.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싸움도 하면서 부모님의 말은 귀담아 듣지않는 아이였습니다.
2. 모태신앙이었지만 초등학교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3. 중학교 시절을 시작으로 청년부까지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믿음의 삶이 변화히기 시작했습니다.
4.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5. 임마누엘 찬양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제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 김병곤 은퇴안수집사(1956년생 / 섬김20목장)

1.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2. 아는 권사님을 통해 교회 출석하며 믿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의 심리적 변화를 시작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 에수님은 말씀과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만난 나의 살아계신 구세주이십니다.
5. 상례팀 운구위원들을 늘릴는 일이 가장 보람있고 즐거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황미하 집사(기쁨 06목장)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새해를 맞이하며 으레 한 해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는 했다. 문득, 하나님께도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차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들었던 소망들과 연결 지어 보았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실지도 모른다. 마치 부모가 처음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마음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마냥 행복한 어린아이에만 머무르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5년이 넘는 경력 단절, 소위 경단녀와 잠깐의 9급 공무원 시험공부, 불합격의 시간을 지나 고척 재미난 지역 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가 되었다. 또한 새롭게 분화하는 목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주님이 이러한 역할과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하다. 내게 여러 가지 역할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감히 또 헤아려 본다. “내 양을 먹이라” 2천년 전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게 하시는 당부가 되어 나를 찾아왔다.

주님, 2026년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당신과 깊이 교제하는 사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무익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26년 새해에도, 친정에 온 것같은 편안함으로

김미경 집사(화평 30목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 갈망하던 차에 예수동행 ,말씀동행으로 올 해를 시작하며 살았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고척 교회에서는 곁눈질 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필사로 나를 깨우며 하나 하나 이끌어 주시니 이 한 해가 감사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생활하니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달라지니 나의 가정이, 그리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실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니 그 사랑을 만끽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남도, 드넓은 가을하늘을 봄도, 빨간 낙엽을 보고 느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감사로 제자 훈련도 은혜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찬양대 섬김도 은혜요 오병이어 식당에서 권사님, 집사님들과 친정에 온 것같은 편안함으로 으샤으샤 힘내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71년을 지내온 이 성전이 복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귀히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님들 임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 복된 곳에서 저희 가족도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척교회가 참 믿음 안에 건강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곳에 저희들의 시선도 머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그 자리로

한연화 집사(사랑 09목장)



나무들은 노랗게 빨갛게 색깔 옷을 바꿔 입는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구름은 너울 너울 솜사탕 같기도 곰인형 같기도 강물이 흘러가는 듯하다. 가을 풍경은 너무 짧아 그런지 친구를 마중하는 그 마음처럼 설레고 귀하다. 매일 매일이 똑같다가도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이 귀한 시간에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가 넘친다.

오늘도 이번주 찬양곡 음원을 재생하며 일과를 시작한다. 찬양곡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준다. 8년 전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 대신 임마누엘에 가서 찬양을 불러줘야 해~^^;" 그렇게 주일 2부 예배 찬양대인 임마누엘 찬양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씀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나는 찬양을 좋아하고 그 때에 나는 찬양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나의 사랑, 임마누엘! 얼마 전 은퇴 장로님께서 연로하셔서 환송식을 치뤘다. 80을 훌쩍 넘기신 연세까지 찬양대에서 헌신하신 것이다. 적어도 60년이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흘렀다. 장로님의 찬양 사랑이 감격적이어서, 또 '나도 장로님처럼 오래도록 찬양할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다…

'주님,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드렸다.

〈은혜〉라는 가삿말 처럼-내가 누려왔더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어느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주님, 저를 택하여 주시고 제가 설 곳, 쉴 곳, 머물 곳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고척교회로 인도하시고 찬양대와 마더와이즈를 감당케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주님의 뜻을 몰라 '왜 저인가요?, 이 상황은 뭐지요?, 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쵸, 주님만 알고 계시지요.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손 꼭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주님 앞에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나의 감사가 언제나 늘 풍성하길 기도한다.

깊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이원중·안미연 선교사(일본 교토)



일본에 온 지 어느새 1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오기 바로 전인 2006년~2007년까지 2년동안 교육목사로서 고척교회 행복목장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깊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고, 행복목장의 선생님들, 학생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일본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온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협력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일찍 찾아 뵙고 감사의 인사와 선교보고도 드려야 했는데, 그러한 기회를 만들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며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가족은 일본 재일대한기독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협력교회 소속의 교토동산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약 9년 간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의 기독교대학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토의 도시샤대학에서 일본의 개신교 역사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시샤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가르친 것을 시작으로 군마에 있는 니지마학원단기대학에서 교목으로 2021년~2023년까지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쳤고, 2024년부터는 다시 도시샤대학의 기독교문화센터 소속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도시샤대학은 150년 전 기독교정신으로 창립된 대학이며 현재까지도 기독교 건학의 이념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기독교문화센터입니다. 현재 두명의 전임 교목과 두명의 파트타임 교목이 사역을 하고 있으며 저는 두명의 전임 교목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안미연 선교사는 생활 속의 선교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양력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남 지용이는 교토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학을 공부하며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차남 지민이는 와세다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지금 불가리아에 교환유학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어릴 때 일본에 왔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의 사역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 광야 예배를 드리고

류동준 선교사(캄보디아)



2022년 1월 2일 쩜벅플루어 마을 첫 주일예배

고척교회를 떠나온 지도 벌써 14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후로 6년여의 한국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한국을 떠나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8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껀달 주(州)'에 있는 '쩜벅플루어'라는 마을과 '틀록엉끄롱' 마을, 뜨러빼앙로까 초·중학교입니다. 껀달 주는 한국의 경기도와 같은 곳입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경기도가 있듯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둘러싸고 껀달 주가 있습니다. 이 껀달 주의 시골 마을로 이웃하고 있는 세 마을이 저의 사역지입니다.

쩜벅플루어 마을은 2018년 3월 초 처음 캄보디아 땅을 밟은 뒤 2년 간의 언어 연수 기간 중 차를 타고 캄보디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찾은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쩜벅플루어 마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재적 인원 약 180명, 평균 출석 약 110명 정도의 아이들과 매 주일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서 광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구요.

쩜벅플루어 마을에서의 사역이 안정적인 궤도의 오르자 2023년부터는 뜨러빼앙로까 초·중학교에서 주중에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뜨러빼앙로까 초·중학교는 쩜벅플루어 마을 바로 옆 마을에 있습니다(마을 이름이 뜨러빼앙로까입니다). 이 학교는 뜨러빼앙로까 마을을 중심으로 이웃하고 있는 4개의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5개의 마을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틀록엉끄롱 마을은 뜨러빼앙로까 초·중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로 지난 3월경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틀록엉끄롱 마을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재밌습니다. 워낙에 학교 근처에서 예배를 시작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평소 뜨러빼앙로까 초·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알게 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틀록엉끄롱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한 학생 집의 처마 밑에서 광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약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뜨러빼앙로까 초중학교 영어수업

주일 아침이면 이동식 스피커와 TV, 마이크, TV에 연결해서 쓰는 파워뱅크(전원 공급장치), 그리고 커다란 돗자리(2mx4m) 4개를 차에 싣고 쩜벅플루어 마을로 가 예배를 드리고 쩜벅플루어 마을의 예배가 끝나면 바로 틀록엉끄롱 마을로 이동하여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참 희한하게도 바로 옆 마을인데도 이웃 마을에서 드리는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두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첫째, 쩜벅플루어 마을과 틀록엉끄롱 마을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교회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둘째, 예배 처소가 없어 광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셋째,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시는 손길이 고척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뜨러뻬앙로까 초중학교



쩜벅플루어 마을 아이들



쩜벅플루어 마을 주일예배



쩜벅플루어 마을 한국어수업



틀록엉끄롱 마을 주일예배

일본 영혼들 속에 자리 잡아

강장식·이문경 선교사(일본 동경)

일본은 교회와 기독교 성경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무하거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터운 불신과 경계심은 전도의 벽이자, 교회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높은 경계심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해도 쉽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일본인 성도도 첫 방문 때 여기 들어갔다가 붙잡혀 나가지도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넌 크리스천 멤버가 절반이 넘는 가스펠 콰이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부르는 흑인 가스펠을 넌 크리스천 일본인들도 좋아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인 성도가 중심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자발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모여 신나게 가스펠 찬양을 연습합니다. 20명 가까운 멤버들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찬양을 완벽하게 외워 악보없이 부릅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이유는 교회 예배에서 특별찬양도 하고, 교회의 콘서트 전도 집회에도 출연하고 여러 복지 시설에서 봉사 공연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친밀함이 깊어지면서 가족과 내면의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가족과 자녀의 아픔을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찬양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가스펠 가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영혼 깊숙이 젖어 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가스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이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본은 부국으로 비쳐지는 반면, 아동 6명중 1명은 빈곤 아동에 해당되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의 빈곤 아동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식 선교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자 교회의 어려운 재정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겠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이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식당에 줄을 서고 기다리는 주민들

교회의 취사 시설과 교회 식당이 있지만, 교인 봉사자로는 부족했기에 넌 크리스천들 친구들도 오게 하였더니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이 봉사를 더 즐기고 교회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당에 오는 독거노인과 빈곤층 어린이는 늘어 100명 가까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인정받아 필요한 경비는 구청의 지원을 받고, 지역의 기업으로부터 물품 기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교회에서 여는 음악 전도 집회에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것은 예배당이 좁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필자 가족과 우리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환영과 감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작고 어려운 교회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종과 헌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 일본 영혼들 속에 자리잡아 갈 것을 믿습니다. 조금씩 믿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드나드는 교회, 교회에서 저들이 신나고 즐겁게 놀고 유익한 것을 배우는 행복한 공간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간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의 안식처가 되어 가도록 이 외에도 영어교실, 한국어 교실, 학습부진아 지원 공간 등으로 활용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이 땅이 주민들을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스펠콰이어 콘서트(전도집회)


가스펠콰이어 사회복지시설 공연

복음은 언어보다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

김경하 집사(소망 38목장)

추운 계절속 공기에는 언제나 잔잔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자연스레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계절의 끝자락에서 제 신앙의 여정을 떠올려보면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저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아는 동생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만 해도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보다 낯선 분위기에 집중했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 준 친구가 다문화선교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된 다문화선교팀의 시간은 제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분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순간 언어의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진심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언어보다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엔 제가 그들을 돕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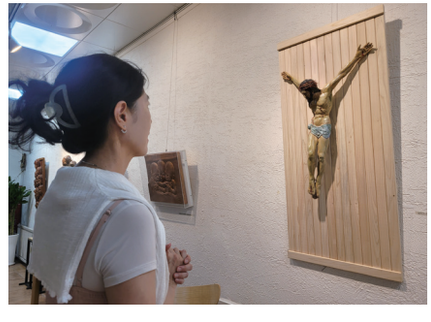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속에서 제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다문화선교팀의 시간은 제게 신앙의 가을과 같았습니다. 봄처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여름의 열정 속에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을의 결실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겨울의 찬바람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신앙생활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귀한 사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문화 선교팀에서의 사역은 제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은혜의 계절이었습니다.





새가족분들을 존귀하게 사랑으로



이종민 안수집사(정착팀장/소망 38목장)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가족 분들이 교회에 대해 느끼는 첫인상이 있을 것인데, 세상속에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듯이 교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저희 새가족부가 교회 처음 오시는 새가족분들께 주는 첫인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요…

제가 새가족부 정착팀에서 사역한지가 5년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새가족을 섬기면서 느낀점 몇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족 섬김이분들이 새가족을 섬기는 사역에 참으로 현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한 주 힘겹게 살다보면 주일에 많이 힘드실수도 있는데,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중보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팀장을 맡고있는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새가족부에는 행사와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근히 바쁜 부서입니다. 매월 행사로는 기도회 및 월례회, 권영준 목사님의 통합교육, 새가족 등록식과 환영식이 있으며 년중행사로는 신년회, 봄야유회, 가을야유회, 송년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새가족부 정착팀의 핵심은 열여덟분의 섬김이분들이 하시는 새가족대상 교육입니다. 새가족대상 교육은 5주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오시는 새가족은 100% 완전 초신자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기존에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를 수평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평이동해서 오신 새가족에 대한 교육을 기존의 초신자 방식의 교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오신 항존직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교회생활을 안내해 드려야 할지에 좀더 깊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새가족 정착팀에는 한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빛도 없이 돕는 충성스런 종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림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충만하셔서 한톤 높은 목소리의 소유자 권영준목사님과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까지 항상 챙기시는 장기영장로님, 새가족 정착팀에 모든 것을 신경쓰시는 학교의 총무과장님같은 김세웅집사님과 맛깔나게 주방을 책임지시는 오경숙집사님, 무엇이든지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공영수 운영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새가족을 교육으로 잘 섬기는 “섬김이”분들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원로 김광규집사님, 총각 배동필집사님, 중심 박경란권사님, 챙김 강경자권사님, 밝음 한지현집사님, 마스코트 이계향집사님, 개성 박명희권사님, 열정 김경래집사님, 평온 이진숙권사님, 꼼꼼 이미경집사님, 사랑 김순영권사님, 새얼굴 나정선권사님, 정말 하나같이 소중한 분들이네요. 섬김이 한분한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려요.

4층 새가족 정착팀장 맡고있는 저로서 개인적으로 우선, 새가족 섬김이 분들이 성령충만함으로 먼저 서길 바래요. 그리하여 그 힘을 받아 우리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존귀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새가족 정착팀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 정착팀과 우리 섬김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길 다짐합니다. 고척 성도님들도 우리 새가족정착팀이 새가족을 섬기는일에 하나님께 칭찬 받을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임직자 간증

창립 71주년 항존직 임직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지난 11월 2일 오후 찬양예배 중에 예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 항존직 선거를 통해 장로 3인, 5명의 안수집사, 권사 9인 이 임직되었고 명예권사 15명이 추대되었다.

이날 임직자들은 한명 한명 모두가 각자의 서약으로 남다른 헌신을 약속했다. 그 서약을 통해 새해부터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고 주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내용대로 바르게 쓰임 받기를 소망했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임직자 교육의 지평이 넓어졌고, 성경공부를 넘어 성도들을 품고 이끌어갈 교회의 리더로 임직교육이 더욱 심화되었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주어진 과제도 해결하면서 토론을 통해 항존직으로서 성도들을 품고 이끌어갈 리더십도 체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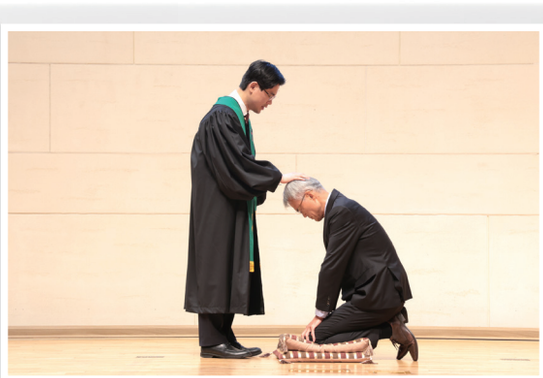
영적권위를 부여받는 임직을 사진으로 다시 한번 회상하며, 세 분의 간증문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항존직 일꾼들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주)

사진으로 보는 임직식
















장로·집사·권사임직 및 명예권사추대


장로·집사·권사임직 및 명예권사추대





장로임직

하나님의 큰 계획안에 인도되어

이철현 장로(은혜 07목장)



'전라남도 승주군 별량면 대룡리 용안마을'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농사짓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한끼 먹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형편이었고, 하루하루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는 항상 밝은 모습이었고, 입에서는 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하리요~~' 할머니께서 항상 부르셨던 이 찬양이 당시 우리 가족의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열정은 가득했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작은 믿음으로 향하던 발길은 항상 교회였습니다.

매 주일 주보 만들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 열정과 기쁨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내 삶에 늘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나갔던 세상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직장은 녹록지 않았고, 온갖 유혹과 주위의 환경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가장 힘든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주일이면 마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었지만, 주위에 함께 하는 사람 중에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놀고 즐기는 습관에 길들여져, 어느 순간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지금의 아내와 연애 중이었는데, 군 복무 중 어느 날 아내에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를 다음 주부터 가겠다는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 바로 감사와 응원 메시지로 답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철야기도를 먼저 다녔고 교회에서 예배 중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 스스로 교회에 나가고, 등록도 했다고 했습니다. 제대 후에 아내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청년부 사역도 함께하니,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결혼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안에 인도되어 지금까지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피택 훈련을 받으면서 장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함을 갖는 것이 아님을,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큰 계획과 우리 고척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권사임직

그럼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복영 권사(사랑 31목장)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저와 함께하셨고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교회보다는 절을 먼저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친구 손에 이끌려 주일에만 전도사님이 오는 작은 시골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도사님에게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도 배우면서 나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취직을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연락 수단도 제대로 없는 때 무작정 올랐던 서울 길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척동에 터를 잡고 고척교회를 오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며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1998년 중이염으로 귀에 고름이 생기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의 권유로 귀를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은 잘 되지 못했고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고름이 나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형님께서 이런 저를 보시고 치유 부흥회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의심이 가득했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형님께 인간적으로 감사한 마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며칠 후 병원 진료를 가게 되었는데 담당 의사의 개인 사정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아니라 주저했지만 동행했던 형님의 권유로 그 의사에게 진료받기로 했습니다. 그 의사는 새로운 약이 있다며 권했고, '어차피 낫지도 않는 거 약이라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약을 바꿨는데, 약을 넣고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고름이 안 나오고 통증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그때 치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남아있습니다. 10여년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남편, 저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일을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아닌,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게 되고, 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적 전도사님을 통해 느꼈던 그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환갑이 지나 권사임직을 하는 지금 누군가는 너무 늦은 나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안수집사임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

정범진 안수집사(기쁨 06목장)



중고등부와 청년부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중등부 시절 “고척교회의 첫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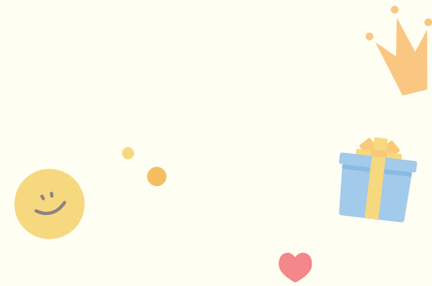
1987년, 중학교 친구의 전도로 처음 고척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척교회에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 ‘나도 교회에 다니면 공부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순수한 기대를 품고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작은 호기심과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 고등부 시절 “감사함의 시작”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어 무대에 서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브니엘(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연극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3년 동안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무대에서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감사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자신감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연”

청년부 시절에는 연극동아리와 스포츠선교팀(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지체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단막극도 올리고 주말에는 운동과 교회 봉사도 참여하면서 청년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여름에 후배의 초청으로 타 교회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뒤, ‘우리 교회에서도 뮤지컬을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기대가 고척교회 첫 뮤지컬 “가스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경험도 없고, 열정 하나로 시작한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청년부 지체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일간의 뮤지컬 공연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

현재는 중등부와 희망의 복지재단 그루터기 사역을 통해 학생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말씀처럼, 예수동행 말씀동행을 기본 삼아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선교의 전초기지인 군인교회에서

5포병여단 임마누엘승포교회
군종참모 대위 임광식 목사


군종목사 가정(민문경사모, 아들 임승혁)

샬롬!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 철의 삼각지대에서 장병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5포병여단 임마누엘승포교회 임광식 목사입니다. 고척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에 힘입어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의 황금어장이자, 청년선교의 전초기지인 군인교회에서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영생활의 변화로 인해 군선교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분명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25년 병장 월급 150만원이 시사하듯, 군대는 이제 춥고 배고픈 곳이 아닙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수많은 장병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것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영과 군인교회는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20대 초반 청년의 때에 가족의 품을 떠나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청년들은 난생처음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군종장교는 신분과 여건을 보장받아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곳은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이제 구름처럼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청년들에게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군종목사들은 이제 교회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훈련장으로, 사무실로, 생활관으로, 정비고로, 경계초소로, 언제든 사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포병 진지로 찾아갑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인해 힘을 얻어 찾아갑니다. 이번 가을에도 임마누엘승포 교회를 방문해주신 고척교회 남선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훈련 중인 부대원들을 위문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군선교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이 한 번 더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인교회를 향한 관심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련장 위문 간 기도


포승교회 예베 후 장병들과

새싹부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새싹부!

장은주 목사(새싹부)







고척새싹부는 0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 교육을 받는 영유아유치 통합부서입니다. 2025년에는 '예수동행, 말씀동행'이라는 주제로 신앙교육이 진행되었고, 통합 부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말씀읽기, 주제말씀 암송하기를 통해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고, 공동체 놀이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규칙과 사회성을 배웁니다. 이와 동시에,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춘 소그룹양육 또한 병행하여 공동체성과 개별성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력에 맞춘 절기 교육에는 다채로운 오감 활동을 접목하여 아이들의 신앙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새싹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누나, 언니, 오빠, 형, 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보고 배우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성이 더욱 함양되고, 나아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섬김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영아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아부!

장은주 목사(영아부)

고척영아부는 0~3세 영아와 부모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올 한해는 "예수동행, 말씀동행"을 주제로 영아와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 말씀암송, 반모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겼으며, 교회력에 따른 절기 교육과 다채로운 오감 활동으로 아이들의 신앙 경험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교사-어린이 찬양팀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예배찬양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장아장 앞으로 나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아기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올 한해는 부모와 교사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부모양육교육 (P.A.T)』, 지친 육아맘들의 마음과 영성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그림책이야기방』, 봄에는 『엄마성경학교』, 여름에는 『아빠성경학교』, 교사들을 위한 『신구약성경탐구반』,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채우는 『오이마켓』 등등 이 모든 양육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고척영아부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예배하며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다감각적인 활동으로 말씀을 배우며, 헌신적인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아부에 속한 모든 가정이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어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유아부

다가오는 '26년에는 성경 말씀에 더욱

유진희 전도사(유아부)

올해 부임해서 유아부에 중점을 둔 것은 말씀과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반복과 지속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 매주 설교시간에 본문 말씀을 성경책으로 정성스럽게 봉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 밭에 심었습니다.

연초에 신발도 벗기 전에 울음을 터뜨리던 유아들이 이제는 밝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감동입니다. 저희 유아부에 하반기 의미있는 사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조 세계를 지키는 「돌돌바나나롤 만들기」 입니다.
더위가 물러나는 10월, 기독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만들기를 했습니다. '세계 채식인의 날(10월 1일)'을 맞아, 아이들이 채소를 맛있게 즐기도록 '돌돌 바나나롤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상추 등으로 만든 롤을 통해,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우리를 건강하는 것을 배우고, 이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를 아끼는 작은 실천의 기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나눔의 기쁨, 추수감사주일 손인형극 "감사 수프 대작전" 공연입니다.
동물친구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감사 수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진 것을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전했습니다. 작은 손인형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인형극에 깊이 몰입하는 유아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더불어 한 달간 배역 연습과 손인형 조종 연습을 위해 땀흘리며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의 깊은 사랑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유아부가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교육 등을 포함한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아부에 많은 관심과 기도부탁드립니다.







유치부

꺄르르 하하하~
웃음이 넘치는 유치부!

김바램 목사(유치부)

꺄르르~ 깔깔~

어린이들의 신나는 목소리가 유치부를 가득 채웁니다. 유치부는 뜨거운 여름 성경학교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새기고 매 주일 예수동행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말씀동행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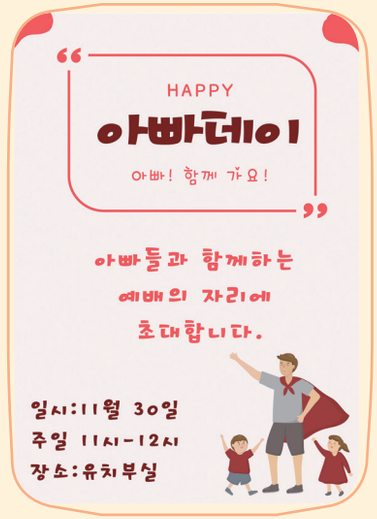


매주 예배를 통해 유치부 어린이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찬양과 율동의 즐거움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 모임을 통해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행복한 웃음 가득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하나님 하하하 하시는 미소가 그려집니다.

아름다운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감사들인지요!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주렁주렁 넘치게 맺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1월 말에는 '아빠데이'를 통해 아빠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빠들이 교회에 한 발 더 발걸음을 내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 맺혀지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유년부

신나게! 함께!
말씀으로!!



임에녹 전도사(유년부)

유년부의 활동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골든벨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년부실 가득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이 채워졌던 그 날, 아이들은 말씀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미리 말씀을 공부해오고, 서로 문제를 의논하며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아가며 함께 박수치고 응원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아이들의 열정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 계획하고 이어가며,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 말씀이 삶을 이끄는 힘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년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관심으로 함께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밝고 힘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오직 성경, 말씀이 답이다!”

심두보 전도사(소년부)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 동행, 말씀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키워드인 ‘약속’을 붙잡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학교 찬양 기도 집회, 공과 공부 나눔의 내용 등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소년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우리 소년부는 “오직 성경, 말씀이 답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은혜로운 경험들을 발판 삼아, 2026년에는 우리가 붙잡은 ‘약속’의 키워드를 더욱 깊이 확장하고, 여기에 ‘연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더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년에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훈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교제의 기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겉모습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속은 말씀으로 꽉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훈련해가는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2026년 소년부의 여정에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이예린 전도사(중등부)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단풍이 예쁘게 드는 어느 가을날, 중학생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넘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되는 예배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예배와 예절, 양육, 친교와 봉사, 전도, 가정과 연계교육까지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지난 중등부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만나 인사와 나눔을 하고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 아이들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만났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말씀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앞으로도 중등부 안에서 이러한 연합이 자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한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학업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박동운 목사(고등부)





고척 고등부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하반기는 예수 동행, 말씀 동행이라는 주제를 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친구,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어색했던 웃음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웃음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한 '이달의 행복'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그야말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한데 어우러져 뛰고 응원하며, 잠시 학업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순수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에는 친구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렸고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가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송을 올려드리는 등,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바쁜 학업과 일상 속에서도 이 '동행'의 여정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편안한 '우리의 자리'

김상아 전도사(사랑부)



올해 처음 문을 연 사랑부 예배. 아이들에게 처음 만난 이 공간과 낯선 사람들이 조심스럽고 서먹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사랑부 예배당은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따뜻한 공간, 그리고 가장 편안한 '우리의 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서로가 친근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신나는 예배 시간: 아이들은 온 마음으로 찬양 율동을 하며 마음껏 뛰어놀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즐거운 소통의 시간: 다양한 신체 놀이를 통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웃고 소통하며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축복의 생일잔치: 생일잔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축하와 축복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내년에 교사들이 더 충원되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달 수준에 맞게 1대1 돌봄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교육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복음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예배, 기도, 찬양 등 신앙생활의 기본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돕고자 합니다.

즐거운 소통의 시간 - 신체놀이 활동





생일축하







오지은

작가 이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의상 디자인 석사)
개인전 6회
아트 페어 9회
그 외 전시 50여회패션 스쿨 일러스트 드로잉 외래교수 역임
한국 미술협회 용인 미술협회 한국 여성작가 협회

작가 노트

과장되고,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형태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본연의
온전하지 못함, 미완성의 존재론적 관념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여인의 눈빛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듯도 하고,
우리의 감추어진 감정이 녹아 있는 듯도 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들로 치밀한 끌림이 있지만,
무표정하고 때론 차가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각 인물의 모습은
이질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작품 속 인물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시선이 연속성은
헤어나올수 없는 상상력을 자극하게 된다.

대표작



작품명 : 시선13
재료 : Acrylic on Canvas
사이즈 : 34.8×24.2cm



작품명 : 시전7
재료 : Acrylic on Canvas
사이즈 : 34.8×24.2cm



작품명 : 시전6
재료 : Acrylic on Canvas
사이즈 : 34.8×24.2cm



최미정

작가 노트

생명의 흐름, 자연의 선율
예술은 인간의 사고를 선입관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체험을 넘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삶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내면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저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순환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원자와 분자의 미세한 파동 속에서 서로를 교감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흐름은 때로 우리의 감정과 직관, 영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순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인체의 생동감은 동맥과 정맥의 흐름으로, 자연의 에너지는 자유로운 선의 율동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작업은 동양화의 모태인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이자, 자연의 보편적인 리듬을 회화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색채와 유연한 선들이 만들어내는 추상과 구상의 경계는,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현실과 꿈 사이의 공명이며, 존재의 내면을 일깨우는 생명력의 언어입니다.

나의 작품은 단지 감상되는 오브제가 아니라, 관람자와 함께 호흡하며 내면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창조적 공명체 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삶의 에너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우리에게 던집니다.



작품명 : 마티스 춤 오마주
재료 : Acrylic on Canvas
사이즈 : 162.2×130.3cm



설금화

프로필(seol keumhwa)

개인전4회
양천미협전시 및 단체전 다수 참여
한국미협회원
양천미협 이사
아트아띠 사무국장

내마음의 풍경

내삶의 계절이 요즘처럼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조석으로 찬바람이 스산하여
몸이 움츠러 듭니다.
하지만 이 가을이 정겹게 느껴지고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삶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으며 석양의 노을은 창작의 열망을 일깨워 줍니다.
캔버스에 붓질을 하며 아름다움을 표현해 봅니다.발레리나의 우아한 몸짓과
인고의 잉태속에 펼쳐지는 숙연함까지 담아내려 애써봅니다.
내마음도 어느 새 창공을 나르는 기분이 듭니다.
소싯적 꿈꾸었던 발레의 꿈을 붓으로나마 캔버스에 맘껏 표현해 봅니다.
유년시절에 음악과 무용을 좋아했지만 산골소녀의 꿈은 내면에 접어둔 채
잊고 있었는데,
꿈에대한 무의식의 흐름이 그림으로 승화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난 발레리나를 그리며 내재된 나의 꿈을 붓으로나마 펼쳐봅니다.



작품명 : 내마음의 풍경
재료 : Oil on Canvas
사이즈 : 53.0×53.0cm